

## 여전히 현재적 문제의식 담고 있는 김남천의 비평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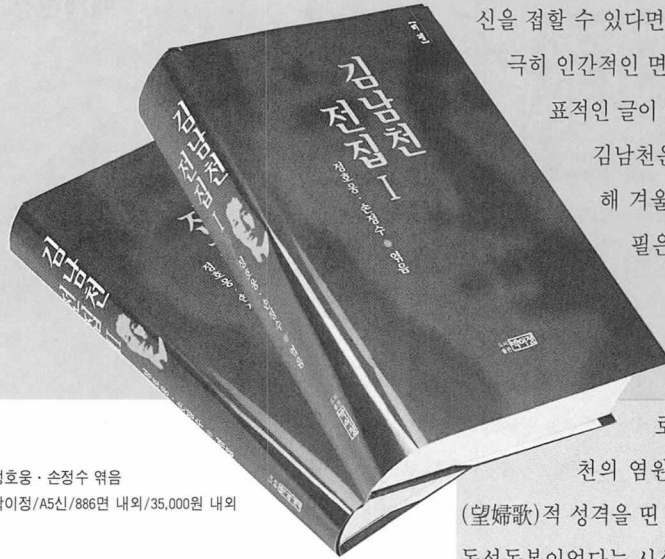
정호웅 · 손정수 엮음 《김남천전집(Ⅰ·Ⅱ)》

1930년대 우리 비평사의 황금기를 일궈낸 '쌍두마차'는 단연 김남천과 임화다. 일제 강점기, 문학의 실천성 문제로 고민했던 두사람은, 각기 소설과 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면서 인상비평 수준을 맴돌던 우리 비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일급 평론가였다. 특히 두사람은 그 유명한 '물논쟁'을 벌이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을 한단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최근 상재한 《김남천전집(Ⅰ·Ⅱ)》(정호웅·손정수 엮음, 박이정)은 우리 현대문학사의 들머리를 화려하게 수놓은 김남천 비평세계의 전모를 파악하고, 그의 내밀한 인간적 고뇌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 1930년대 문단을 뜨겁게 달궜던 '물논쟁'

산재한 김남천의 비평문을 한데 모은 전집 제1권은 무려 886쪽에 이른다. 일반독자들로서는 감히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는 분량이다. 하지만, 이 책을 조금은 가볍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악취미'라는 눈총을 받을 수 있지만, 김남천이 임화와 벌인 논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발표연대순으로 편집된 책의 체계를 무시하고 글을 읽어어나가는 것이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겠지만, 당사자가 아닌 다음에야 싸움 구경만큼 재미있는 일도 드문 게 사실이다. 그 '못된 심보'를 이용해 보는 것이다.

'물논쟁'과 관련해서 맨처음 읽어볼 글은 공교롭게도 김남천이 임화와의 인연을 되돌아본 〈임화에 관하여〉. 이 글에서 김남천은 〈양말 속의 편지〉에 얽힌 일화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과거와 전혀 다른 시세계를 이룬 임화를 높이 평가한다. 〈임화적 창작평과 자기비판〉은 임화의 〈6월의 창작〉으로 선제공격을 당한 김남천의 반박문이다. 이 글에서 김남천은 임화의 평을 일면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임화가 창작평



정호웅·손정수 엮음  
박이정/A5신/886면 내외/35,000원 내외

을 할 때 단지 작품 자체만 관찰하고 작품과 부절환 관계에 있는 작가의 실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 논쟁은 당대의 평단을 뜨겁게 달궜다. 카프 계열의 논객들이 잇따라 논쟁의 대열에 뛰어들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박승극. 이에 김남천은 〈문학적 치기를 비웃노라〉로 박승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남천의 비판을 받은 임화는 반론문 〈비평의 객관성 문제〉를 써 사실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판정패' 당한 김남천은 2년 후 당시를 회고하는 글인 〈창작과정에 관한 감상〉을 썼는데, 많은 부분 임화의 논리를 수긍하면서도 '비평방식의 도식성'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 시대를 풍미한 논쟁이었던 만큼, 이 부분이 전집에서 차지하는 분량은 제법 많다. 거기에서 논쟁 이후 김남천 비평세계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읽는다면, 책 두께에 주눅들지 않고 나름대로 재미있게 이 책을 독파할 수 있을 것이다.

### 너무나 인간적인 면모 확인할 수 있어

《김남천전집》 읽기의 즐거움이 단지 문학비평사에서 거론된 평문을 직접 확인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나온 전집 제2권에는 다양한 산문들이 실려 있는데, 제1권에서 치열한 비평정

신을 접할 수 있다면 산문에서는 김남천의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만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글이 〈어린 두팔에게〉다.

김남천은 임화와 논쟁을 벌인 그해 겨울에 아내를 잃었다. 이 수필은 어린 나이에 어미를 잃은 두팔이 가족사적 불행을 이겨내고 역사적 소명에 충실한 인물로 자라기를 바라는 김남천의 염원이 담겨 있다. '망부가'

(望婦歌)적 성격을 띤 이 글에는 김남천 부부가 동성동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관습의 벽을 깨고 부부로 연을 맺은 두사람은 곧 시련을 맞이해야 했다. 김남천이 카프 1차참거 때 이른바 조선공산주의협의회 사건에 연루돼 투옥됐기 때문이다. 첫째 딸을 낳은 것은 김남천이 옥중에 있을 때였다. 약제사 자격증을 가졌으나 나이가 어려 취직이 안됐던 아내가 딸 양육과 남편 옥바라지로 겪었던 고초를 회상하는 대목에서는 읽는이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이 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둘째 아이를 받기 위해 산파를 데리러 황급히 달려가는 김남천의 모습이다. 날카로운 지성으로 무장한 이론가이기보다 자상한 남편으로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평양 잡기첩(雜記帖)'이라는 부제가 달린 〈뒷골목〉은 김남천 산문의 또다른 백미다. 평양 냉면에 얽힌 추억담과 석전(石戰)풍습이 세월이 흐르면서 '날과람'으로 변한 일을 회고하는 대목에서는 가히 풍속사적 면모마저 보인다. 산문 가운데는 유독 여운형과 박현영을 높이 평가한 글도 있다. 특히 박현영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데도 그를 "민족 대서사시의 영웅적 주인공"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지나친 확대해석이겠지만, 훗날 김남천이 '임화 도당'의 일원으로 낙인찍혀 숙청당하게 되는 빌미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는 글이다.

— 이권우 기자